

# 대학 생활적응과 성별 및 성 역할 정체감의 관련성 연구

김도희  
보람의 집

##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life Adaptation, Sex and Gender Role Identity

Do Hee Kim  
Boram Hom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이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적응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연구 참여자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142명과 여학생 146명이다. 연구도구는 대학생활 적응 척도와 성역할 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SPSS와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병렬다중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응의 수준과 자원에 대한 성별의 영향은 유의하나 성 역할 정체감의 영향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에 설명력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 수준에 대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영향은 유사하였으나 적응 자원에서는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남학생은 남성성이, 여학생은 여성성이 매개하여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과 정체감에 따라 지도방향이 달라야 함을 제안하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 대학생, 적응, 성별, 성역할 정체감, 남성성, 여성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x and gender role identity on college life adaptation. The participants were 142 male and 146 female students.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scale and gender role identity scale were carried out, and we conducted a 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 using Process macro. As a result, while the effect of sex on adaptation level and resources was significant, the explanatory power increased to a meaningful level when effect of gender role identity was considered. In the adaptation level, the effect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are similar in magnitude, but in the resources, masculinity has a more positive effect. Finally, male students were mediated through masculinity and female students were mediated through femininity,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adaptation. These results suggest a differentiated guidance direction according to sex and identity, and suggest that enterprising and challenging spirit is important.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Adaptation, Sex, Gender Role Identity, Masculinity, Femininity

### 1. 서론

대학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학업적 성취를 달성하며 소속한 대학에 애착을 갖는 것을 말한다[1].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많은 대학생이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개인적인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겪거나 중도탈락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 이러한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모 애착, 성격, 사회적 지지, 과거의 성취 경험,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유연성 등의 다양한 내·외적

\*Corresponding Author : Do Hee Kim(mksbuf@naver.com)

Received March 26, 2018

Accepted June 20, 2018

Revised May 2, 2018

Published June 28, 2018

자들이 제안돼왔고[3-5], 사회·인구학적 배경 또한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언급된다[4].

그 중에서도 성별과 대학 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한 연구[6]에서는 과거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대가 지날수록 학업적응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는 남녀 간 적응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대학생활 적응에서의 남녀 간 성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불일치한 결과들이 보고돼왔다[7-10].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 수행과 성장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성별에 따라 남성은 수학이나 공간능력의 활용에 우세하고, 여성은 언어적 능력이나 일화 기억과제에서 더 우세하다고 생각됐으나 여러 증거에서 불일치한 결과들이 보고돼왔다[11-14]. 이에 한 연구[15]에서는 성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해결 접근방법의 전략적 차이 때문에 성과의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남녀 의대생의 외과적 손기술과 이론시험 점수를 평가한 한 연구[16]에서는 두 가지 평가 모두에서 여학생이 월등히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들의 연구는 남학생 317명과 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여학생이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중요한 점은 여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가 더 높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대학생의 학업적응과 관련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1991년에 Brockett과 Hiemstra[17]가 개인 책임성향 모형을 제안하면서 학술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 스스로 학습을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과업을 완수하려는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된다. 대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의 주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됐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불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및 또래와의 친밀도가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녀 표본을 구분하여 살펴본 한 연구[19]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부나 이성 친구와 친밀할수록 적응수준이 높고, 여학생은 모와 친밀할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20]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응

적인 정서조절전략을 더 사용하고 심리적 안녕감도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인지적 정서조절에는 긍정적 초점 변경, 긍정적 재평가, 계획 다시 세우기, 조망 확대, 수용의 다섯 가지 적응적인 조절전략과 자기 비난, 타인 비난, 반추, 과국화의 네 가지 부적응적인 조절전략으로 구분되는데[21], 인지적 정서조절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초점 변경 외에 나머지 모든 전략이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고 그 크기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계획 다시 세우기와 재평가만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심리적 안녕감 중에서도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에서만 높은 상관을 보여 성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20].

진로적응에서의 남녀 간 성장에 관한 연구[22]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수준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은 양친과의 애착 수준에 따라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남학생은 부와의 친밀감 차원 및 모와의 신뢰감과 친밀감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녀 대학생 모두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아버지와의 애착이 진로정체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남녀 대학생 모두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고 부모가 진로와 관련된 지지행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으며 여학생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남학생은 부모의 간섭이 적을수록 진로정체감이 잘 형성된다고 하였다[22]. 그리고 전공만족도에서의 성장을 다룬 연구[23]에서는 대학생의 성 유형 성격특성과 성 정체감이 진로흥미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 전형성이 진로흥미의 매우 강력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중 여성적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남성만 성 전형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 연구 중에는 진로발달 과정에서의 남녀 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한-타협이론[24]이나 사회인지 진로이론[25]을 바탕으로 이뤄진 후속연구를 제외한 많은 연구가 남녀 표본 간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9,26-28]. 성별에 따라 변인의 영향력이나 경로에 차이가 있다고 제안한 연구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변인의 영향을 적절하게 해석했다고 보기 어렵다[29-31]. 또한, 성별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도 주로 부모나 또래와

같은 대인관계 요인에 초점을 두어 성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리적 변인인 성 역할 정체감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19,32]. 더 나아가 적응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적응수준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응자원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의 연구는 적응 수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33]. 따라서 적응을 위한 잠재적 자원을 추가로 고려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변하지 않는 요인인 성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별과 밀접한 심리적 구성요인인 성 역할 정체감에 초점을 둔다면 성별과 적응현상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의미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대에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개선된 시민의식으로 인하여 성 역할의 규정이 허물어지고 양성성이 강조되기도 하나 온라인 안에서는 남성혐오나 여성혐오를 드러내며 성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흔히 않게 볼 수 있다[34]. 학술 데이터베이스 제공기업인 DBpia에서는 2016년도 사회·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여혐’이라고 밝혔으며[35],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의 2017년 1월 특집호에는 ‘성별의 재발견’을 주제로 하여 현대의 성 역할 문제와 그 변화에 관한 사실들을 담아냈는데, 9살 성전환자 소녀를 표지모델로 삼아 화제가 된 바 있다. 더 나아가 2018년에는 SNS를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과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남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성 역할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것과 달리 성 역할 정체감과 대학 생활의 적응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본 학술적 연구는 많지 않다.

성 역할 정체감이란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대가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내면화된 것으로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36]. 남성성은 남자다운 특징과 역할을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용기와 독립성, 확고한 자기주장과 경쟁, 논리와 합리성, 대담함과 적극성 등이 남자다운 특징으로 정의된다[37]. 이러한 남성성의 발달에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는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폭력적이고 여성과 성교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매체에의 노출 등이 있으며 남성성이 주로 사회적·문화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다는 증거들이 다수 축적되고 있다[38-40]. 반면, 여성성은 감정이 풍부하고 섬세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친절하고 상냥한 관계지향적인 태도와 같은 특징으로 정의되며[39] 이러한 여성적인 특성 또한 문화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여성성으로 분류된 것이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가 반드시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41].

성 역할 정체감과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과거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단일차원이라고 생각되어 남자다운 남성과 여자다운 여성이 더 적응적일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일치형 모델’이라고 불렀다[42]. 그러나 응답 항목의 양극단적인 채점을 통하여 성 역할 정체감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하면서 한 개인이 두 속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43], 남성성과 여성성 유형에 미분화와 양성성 유형을 추가한 양성성 모델이 제안되었다[37]. 그리고 후속연구가 축적되면서 양성적일수록 성 역할 행동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더 유능하고 매력적이라고 보았다[44].

그러나 성별과 관련 없이 남성성 요인이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남성성 모델’을 제안한 연구[45]가 발표되고, 유사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위 가설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6,47]. 한편, 여성성이 배려지향적인 사회성과 연관이 높다는 가설[48]도 제안되었는데 집단적 가치와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향문화권에 속하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타인 지향적인 여성적 특성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크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후, 몇몇 연구자들은 기존의 성 역할정체감 척도[37]가 긍정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만 구성되었다고 지적하며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 및 부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장하였다[49]. 그리고 남성성을 주도성이 주축으로 구성된 건강한 남성성과 친화성이 결여된 부정적인 남성성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여성성을 친화성이 주축으로 구성된 건강한 여성성과 주도성이 결여된 부정적인 여성성으로 구분한 모델을 제안하고 척도를 고안하기도 하였다[50].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들이 성 전형적 행동을 더욱 고착시킨다는 비판이 등장하였는데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현대 여성들이 전통적인 여성적 특성을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성 역할정체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44].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고생의 성 역할 정체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51]에서 남성성과 양성성 유형에서 우울의 정도가 낮고,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에서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생의 성 역할정체감과 방어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52]에서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의 순으로 적응적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며 남성성 유형이 나머지 유형보다 자기억제 방어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태권도를 전공한 여성 선수와 학생의 성 역할 정체감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53]에서는 양성성 유형이 가정 적응, 장래 적응, 개인 적응, 환경 적응, 학교 적응 영역 모두에서 다른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성 적응 영역에서만 여성성 유형이 더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을 전공하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4]에서는 남성성이 자존감과 학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성 역할 정체감과 전공만족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학과적응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학생과 4-50대 중장년 남성의 남성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55]에서는 남성성이 높을수록 20대 집단의 우울감이 낮았지만, 중장년 집단에서는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 초·중·고등학생의 성 역할정체감과 학교 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56-58]이 전개되었는데 위와 유사하게 남학생은 양성성과 남성성 유형이 많고 여학생은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이 많으며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의 순으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 역할 정체감과 대학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59]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양성성 유형이 많고 미분화 유형은 적으며, 여학생은 여성성 유형이 많고 남성성 유형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남학생은 양성성 유형으로 발달하고 여학생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압력을 더 강하게 인식하여 여성성 유형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형별 적응수준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 순으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9].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연구가 정진경이 개발한 성 역할 정체감 척도[60]를 사용하여 유형을 구분하였다는 점인데 위 척도를 사용할 경우 응답자가 동성집단과 자신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고하기 때문에 남성 응답자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높게 평가하는 반면, 여성 응답자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낮게 평가하는 문항편파 현상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61].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남성표본의 경우 양성성이 높게 나오고 반대로 여성표본은 미분화 유형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

다 성별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받으며 성별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처벌과 타인으로 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받아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기 쉽다는 견해[62]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논의가 타당한지도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성 역할 정체감과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고등학생을 성 역할정체감의 유형별로 나누어 적응수준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구분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44,49,50,63], 성 역할정체감과 적응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이 적응수준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잠재적 적응자원의 차원은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33].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집단 간 차이 검증에 초점을 두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별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수준과 잠재적 적응자원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성별과 성 역할 정체감의 직·간접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 역할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학생의 성 역할 문제를 재조명하고, 대학에서 부적응 문제와 결부된 성 역할정체감의 역할을 이해하고 중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 생활 적응수준 및 잠재적 적응자원에 대한 성별의 직접효과와 성 역할 정체감의 간접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 생활적응의 하위요인에 대한 성별의 직접효과와 성 역할 정체감의 간접효과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도와 G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임의표본 추출을 하였다. 수집된 312명의 자료 중에서 한 척도 내에서 모두 1점으로 채점하거나 채점하지 않은 문항이 한 개라도 있는 13명의 자료를 제외하였으며 남은 299부의 자료를 대상으로 Shapiro-Wilk검정을 실시하여 정규성

을 확인한 결과, 일부 요인에서  $p < .05$ 의 유의수준으로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Box plot을 이용하여 이상치를 보인 11명의 자료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88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연령범위는 만 18세부터 만 28세까지이며 그중 남학생이 142명(49.3%), 여학생이 146명(50.7%)이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70명(24.3%), 2학년이 70명(24.3%), 3학년이 56명(19.4%), 4학년이 92명(31.9%)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88)

Character	Category	n	%
Sex	male	142	49.3
	female	146	50.7
Age	18~19	53	18.4
	20~21	47	16.3
	22~23	97	33.7
	24~25	62	21.6
	26~28	29	10
Grade	1	70	24.3
	2	70	24.3
	3	56	19.4
	4	92	31.9

## 2.2 연구도구

### 2.2.1 성 역할 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정진경[60]이 개발한 한국판 성 역할 척도(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를 사용하였다. 위 척도는 남성성(20문항), 여성성(20문항), 긍정성(20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60문항이고, 7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요인만 사용하였으며 성 역할정체감 척도의 문항편과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성의 여성성과 남성성은 각각 [여성성 총점-(0.341(조절계수)×20(문항 수))]/20과 [남성성 총점+(0.316(조절계수)×20(문항수))]/20으로 수정하고, 여성의 여성성과 남성성은 각각 [여성성 총점+(0.263(조절계수)×20(문항 수))]/20과 [남성성 총점-(0.166(조절계수)×20(문항수))]/20으로 수정하여 값을 조정하였다[61].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a는 남성성이 .85이고 여성성이 .85이다.

### 2.2.2 대학생활 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경아 등이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척

도를 사용하였다[33]. 위 척도는 전공만족(5문항), 대인관계(4문항), 학업적응(6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적응수준 차원과 정서안정(20문항), 사회적 유능감(8문항), 학습전략(12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적응자원 차원 및 단일요인인 위기차원을 포함한 총 71문항이고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a는 적응수준이 .81이고 적응자원이 .85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전공만족이 .78, 대인관계가 .63, 학업적응이 .65, 정서안정이 .93, 사회적 유능감이 .72, 학습전략이 .71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7이하인 대인관계와 학업적응 요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ver 21과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여학생을 기준으로 성별 요인을 더미 변수로 코딩한 다음, 성별은 독립변인(X)으로 설정하고 남성성( $M_1$ )과 여성성( $M_2$ )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대학생활 적응수준과 자원 및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Y)으로 한 병렬 다중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64].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존의 모형인 Baron과 Kenny의 방법 및 Sobel test는 모형의 측정오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료의 정규성에 민감하며 다중매개와 같은 정교한 매개과정을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65]. 그리고 이는 부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경로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데에서 AMOS를 통한 구조방정식 모델과도 차별된다. 이 방법은 신뢰구간의 상한한계(Upper limit; ULCI)와 하한한계(Lower limit; LLCI)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의 제안에 따라 부스트래핑 사례 수를 10,000개로 설정하였다[64].

## 3. 연구결과

### 3.1 대학 생활적응 수준과 자원에 대한 효과

적응수준과 잠재적 자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모형의 검증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직접효과는 성 역할정체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는 관계없이 성별의 차이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대학생활 적응수준에 대한 성별의 직접효과를 살펴보

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응을 잘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beta=3.84, t=3.49, p<.001, CI=1.67\sim6.01$ ) 설명력이 3.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이 성 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남성성에 대한 설명력은 11%, 여성성에 설명력은 25.3%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남성성은 높고( $\beta=0.4, t=5.95, p<.001, CI=0.27\sim0.54$ ) 여성성은 낮음( $\beta=-0.7, t=-9.8, p<.001, CI=-.84\sim-.56$ )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에서 성 역할정체감을 함께 고려하면 설명력이 크게 상승하여 대학생활 적응수준의 분산을 18.9%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스트래핑 결과에서도 성별이 남성성( $CI=.69\sim2.34$ )과 여성성( $CI=-3.33\sim-1.05$ )을 통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a_1=0.40, p<.001$ ) 남성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높아지는 결과( $b_1=3.53, p<.001$ )로 인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1.43단위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a_2=-.7, p<.001$ ) 여성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높아지는 결과( $b_2=3.04, p<.001$ )로 인하여 여학생의 적응수준이 2.1296단위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두 간접효과의 합계를 나타낸 총 간접효과를 고려하면 남성성의 영향이 여성성의 영향을 상쇄하더라도 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평균적으로 0.69단위만큼 낮게 추정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CI=-2.33\sim.97$ ), 회귀계수 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점수의 1단위 변화에 따라 적응수준 점수가 3단위 정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효과의 크기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겠다.

대학생활 적응자원에 대한 성별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5.56, t=2.75, p<.01, CI=1.59\sim9.54$ ) 분산에 대한 설명력이 2.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 역할정체감을 함께 고려하면 설명력이 크게 상승하여 분산의 16%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스트래핑 결과, 남성성( $CI=1.16\sim4.18$ )과 여성성( $CI=-5.96\sim-1.04$ )의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a_1=0.4, p<.001$ ) 남성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자원이 높아지는 결과( $b_1=6.28, p<.001$ )로 인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54단위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a_2=-.7, p<.001$ ) 여성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자원이 높아지는 결과( $b_2=4.87, p<.001$ )로 인하여 여학생의 적응자원이 3.41단위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총 간접효과를 고려하면 남성성의 영향이 여성성의 영향을 상쇄하더라도 남학생의 적응자원이 평균적으로 0.87단위만큼 낮게 추정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CI=-4.32\sim2.57$ ). 하지만 회귀계수 상으로 여성성의 변화에 따른 자원의 변화 단위보다 남성성의 영향이 평균 1점 가량 더 크게 나타나 남성성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 3.2 적응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효과

대학생활 적응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모형의 검증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전공 만족에 대한 성별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Table 2.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ex and gender role identity on Adaptation level and resources

(N=288)

(Y: Adaptation level)	Effect	S.E.	LLCI	ULCI	R <sup>2</sup>	F
X : Sex	3.8413	1.1007	1.6746	6.0079		
M <sub>1</sub> : Masculinity	1.4305	.4194	.6987	2.3424	0.1894	22.1194***
M <sub>2</sub> : Femininity	-2.1296	.5806	-3.3303	-1.0519		
(Y: Adaptation resources)	Effect	S.E.	LLCI	ULCI	R <sup>2</sup>	F
X : Sex	5.5652	2.0193	1.5905	9.5400		
M <sub>1</sub> : Masculinity	2.5423	.7752	1.1612	4.1875	0.1604	18.0859***
M <sub>2</sub> : Femininity	-3.4124	1.2480	-5.9689	-1.0483		

\*\*\*p<.001

전공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1.23$ ,  $t=2.31$ ,  $p<.05$ ,  $CI=.18\sim 2.29$ ) 분산에 대한 설명력이 0.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 역할정체감을 함께 고려하면 전공 만족도의 분산을 9%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스트래핑 결과, 남성성( $CI=.03\sim .75$ )과 여성성( $-1.50\sim -.33$ )의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a_1=0.40$ ,  $p<.001$ ) 남성성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 $b_1=.89$ ,  $p<.05$ )로 인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0.36단위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a_2=-.7$ ,  $p<.001$ ) 여성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자원이 높아지는 결과( $b_2=1.28$ ,  $p<.001$ )로 인하여 여학생의 적응수준이 0.9단위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총 간접효과를 고려하면 남성성의 영향이 여성성의 영향을 상쇄하더라도 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자원이 평균적으로 0.53단위만큼 낮게 추정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CI=-1.32\sim .24$ ). 그리고 회귀계수 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점수의 1단위 변화에 따라 적응수준 점수가 1단위 정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효과의 크기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겠다.

정서안정에 대한 성별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성별이 정서안정의 분산을 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47$ ,  $t=2.99$ ,  $p<.01$ ,  $CI=1.88\sim 9.07$ ). 그러나 성 역할 정체감을 고려하여도 분산

의 6.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스트래핑 결과에서도 남성성( $CI=-.32\sim 1.97$ )과 여성성( $-2.63\sim 1.44$ )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성별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beta=-.41$ ,  $t=-.89$ ,  $p>.05$ ,  $CI=-1.30\sim .49$ ), 설명력도 0.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 역할정체감을 함께 고려하면 분산의 25.4%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스트래핑 결과, 남성성( $CI=.47\sim 1.24$ )과 여성성( $CI=-1.67\sim -.58$ )의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a_1=0.4$ ,  $p<.001$ ) 남성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지는 결과( $b_1=2.04$ ,  $p<.001$ )로 인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0.82단위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a_2=-.7$ ,  $p<.001$ ) 여성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지는 결과( $b_2=1.57$ ,  $p<.001$ )로 인하여 여학생이 1.1단위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총 간접효과를 고려하면 남성성의 영향이 여성성의 영향을 상쇄하더라도 남학생의 사회적 유능감이 평균적으로 0.27단위만큼 낮게 추정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I=-1.03\sim .48$ ). 그리고 회귀계수 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점수의 1단위 변화에 따라 적응수준이 1~2단위 가량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효과의 크기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겠다.

학습전략에 대한 성별의 설명력은 0.1%이며 직접효과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ex and gender role identity on each sub-factor of adaptation

(N=288)

(Y: Satisfaction with major)	Effect	S.E.	LLCI	ULCI	$F^2$	F
X : Sex	1.2378	.5348	.1852	2.2904	.0904	9.4091***
M <sub>1</sub> : Masculinity	.3616	.1845	.0327	.7549		
M <sub>2</sub> : Femininity	-.9002	.2957	-1.5043	-.3392		
(Y: Emotional stability)	Effect	S.E.	LLCI	ULCI	$F^2$	F
X : Sex	5.4794	1.8274	1.8824	9.0764	.0632	6.3894***
M <sub>1</sub> : Masculinity	.7556	.5873	-.3263	1.9799		
M <sub>2</sub> : Femininity	-.5806	1.0458	-2.6326	1.4407		
(Y: Social competence)	Effect	S.E.	LLCI	ULCI	$F^2$	F
X : Sex	-.4084	.4568	-1.3076	.4907	.2547	32.3600***
M <sub>1</sub> : Masculinity	.8260	.1969	.4744	1.2468		
M <sub>2</sub> : Femininity	-1.1057	.2736	-1.6723	-.5848		
(Y: Learning strategy)	Effect	S.E.	LLCI	ULCI	$F^2$	F
X : Sex	.4942	.6042	-.6951	1.6835	.2523	31.9414***
M <sub>1</sub> : Masculinity	.9608	.2352	.5336	1.4484		
M <sub>2</sub> : Femininity	-1.7261	.3639	-2.4754	-1.0506		

\*\*\* $p<.001$

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49, t=.81, p>.05, CI=-.69\sim 1.68$ ). 그러나 성 역할정체감을 함께 고려하면 분산의 25%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스트래핑 결과, 남성성( $CI=.53\sim 1.44$ )과 여성성( $CI=-2.47\sim -1.05$ )의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a_1=0.40, p<.001$ ) 남성성이 높을수록 학습전략이 높아지는 결과( $b_1=2.37, p<.001$ )로 인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0.96단위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성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a_2=-.7, p<.001$ ) 여성성이 높을수록 학습전략이 높아지는 결과( $b_2=2.46, p<.001$ )로 인하여 여학생이 1.72단위만큼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총 간접효과를 고려하면 남성성의 영향이 여성성의 영향을 상쇄하더라도 남학생의 학습전략이 평균적으로 0.76단위만큼 낮게 추정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CI=-1.78\sim .23$ ). 그리고 회귀계수 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점수의 1단위 변화에 따라 적응수준 점수가 2단위 가량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효과의 크기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겠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활 적응수준과 잠재적 적응자원 및 하위요인인 전공만족도, 정서안정, 사회적 유능감, 학습전략에 대해 성별과 성 역할 정체감의 직간접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은 남성성이, 여학생은 여성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은 양성적으로 발달해가고 여학생은 여성성을 유지한다는 선행연구[59]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의 주장대로라면 여성성 점수에서 남녀 간 큰 차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수준에 대한 성별의 직접효과와 성 역할 정체감의 간접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 역할 정체감을 고려하였을 때에 설명력이 크게 상승하여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유사한 크기의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 역할 정체감 차이로 인하여 남학생은 남성성을 통해서, 여학생은 여성성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인의 효과크기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성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긍정적 성격특성으로 구성된 점에서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것을 떠나서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많이, 그리고 강하게 지각할수록 적응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자원에 대한 성별의 직접효과와 성 역할 정체감의 간접효과도 유의하였으며 적응수준과 마찬가지로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에 설명력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남성성을 통해, 여학생은 여성성을 통해 자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유사하다. 간접효과와 총합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두 매개변인의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영향력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64] 두 변인의 간접효과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는 검증할 수 없으나 남성성의 간접효과 크기가 여성성보다 두 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나 자원에 대한 성 역할 정체감의 효과는 남성성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목표에 따라 중재의 방향이 달라야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즉, 현실에 직면한 적응문제를 다루는 장면에서 자기이해 향상을 목표로 하거나 성격을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면 다양한 성격적 특성을 논의하고 긍정적 특성의 수준을 높게 지각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잠재적인 적응자원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남성성에 해당되는 성격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논의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둘째,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공만족과 정서안정에서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두 변인 모두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안정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성별과 함께, 성 역할 정체감을 같이 고려할 때에는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간접효과와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양성성 모델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성에 해당하는 친절하고 온화한, 깔끔하고 꼼꼼하며 싹싹한 특성 및 남성성에



해당하는 섬세하게 일 처리를 해나가려는 특성을 개발하여 주변 사람으로부터 전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며, 입학 이후에는 주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전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낮추고 과제에 대한 부담감에 압도되지 않음으로써 전공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정서안정에서는 성 역할 정체감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지만 남성성이 낮으면서 여성성이 높은 경우에 자기 억제적인 방어를 더 사용하여 낮은 정서안정감을 보인다는 연구결과[52]를 감안한다면, 성 역할 정체감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는 정체감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정서안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유용하리라 보인다.

사회적 유능감에서는 남성성의 간접효과가 여성성의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남성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 역할 정체감의 간접효과를 고려한 성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의 사회적 유능감이 더 높게 추정되는 것이 아이러니한데 이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여성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한 점[66]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와 정서적으로 가까우나 분리도 잘 이뤄질 때에 남성성이 높다는 연구결과[19]를 고려한다면 여성이라는 성별요인과 건강한 남성성이 교호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남녀의 경로 모형이나 구조방정식 모형의 비교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남성성에 해당하는 독립적이고, 의리가 있으며, 믿음직스럽고, 지도력이 있는 특성과 여성성에 해당하는 인정이 많고 다정다감한 특성을 강조하여 사회적으로 유능함을 느끼고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해본다.

끝으로 학습전략도 남성성과 여성성의 간접효과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양성성 모델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성에 해당하는 차분하고 알뜰하며 꼼꼼한 특성과 남성성에 해당하는 의욕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특성을 강조하여 학업에 끈기 있고 성실하게 임하는 습관이 잡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해본다. 그리고 여학생의 성취 욕구를 높여주는 것을 통하여 학업 적응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주장[24]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 연구결과[22,67] 및 여학생의 높은 학업동기가

실제로 높은 학업수행으로 이어지는 연구결과[16]을 보았을 때, 여학생은 성취에 대한 동기를 강화해주는 전략을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성 역할 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전무한 만큼 연구 간 비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없었지만 이를 종합해보면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적절한 성 역할 모형은 양성성 모델이 유의하며 사회적 적응에서는 남성성 모델이 더 유의하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그 성 역할정체감을 고려한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기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효과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은 남성성의 영향을 통해서, 여학생은 여성성의 영향을 통해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횡단 연구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아직은 자신의 성에 맞는 성 역할 정체감을 건강히 형성하고 긍정적인 이성적 특성을 개발해나가도록 조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주어 세대 간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리라 보인다. 구체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남학생은 예의와 인내 및 배려를 갖춘 바람직한 남성상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요구되며 여학생은 성격적 강점인 따뜻함과 풍부한 감정을 살리고, 소신을 갖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영향이 유사하지만 성별요인에 따라 적응에 활용되는 성격특성이 다르며, 자원영역에서만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성격특성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별적인 영향을 살펴본 국내의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개발된 성 역할 정체감 척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척도를 보완하거나 변화된 성 역할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 한 연구[68]에서는 이성인이 된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남성성을 측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월성과 공격성, 성적 정체감, 반-페미니즘, 감정의 평가절하를 포함한 4가지 남성성 요인이 있다고 하였고 요인에 대한 군집분석의 결과, 과잉 남성성, 전통적 남성성, 전통적 과잉 남성성, 비-남성성의 4가지 남성성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군집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여성에 대한 적대감, 자존감, 우울 증상에 대해 서로 다른 프로파일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 역할의 다양한 차원과 요인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그리고 몇몇 연구[39,65]에서는 정서문제와 성 역할 정체감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안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직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역할점 문항이 많은 것으로 보아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으로 인하여 정서문제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의심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성 역할의 어떤 특성이, 어떠한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분석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변인인 성별 요인만으로도 여성성의 변화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를 설문지 조사연구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위험부담이 있다. 성별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비하였지만, 성 역할 정체감은 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러한 성 역할 정체감의 변화는 성별이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별에 따라 성 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사례연구나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실천적 연구로 발전시킬 때에 자기이해나 성격특성을 다루는 회기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성별과 성 역할 정체감을 함께 고려하여 젠더감수성을 기르고 이성 관계와 비전 및 잠재적 자원에 대해 논의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 중재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남녀 간 임상적 문제와 변화 양상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69], 군대와 같이 성 역할 정체감이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성 역할 정체감이 어떻게 드러나며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70]. 또한, 중재자는 성 역할 정체감이 성

정체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문화적 민감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으로 많은 대학생이 성별에 연연하거나 갈등하지 않도록 타인의 기대와 정해진 역할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특성과 강점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추구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 REFERENCES

- [1] R. C. Feldt, M. Graham & D. Dew. (2011).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construct validity of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4*(2), 92-104.
- [2] E. Rahat & T. İlhan. (2016). Coping styles, social support, relational self-construal, and resilience in predicting student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6*(1), 187-208.
- [3] M. C. Melendez & N. B. Melendez. (2010).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on the college adjustment of white, black, and latina/hispanic women: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1*(4), 419-435.
- [4] M. Credé & S. Niehorster. (2012). Adjustment to college as measured by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 quantitative review of its structure and relationships with correlates and consequenc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4*(1), 133-165.
- [5] I. R. Galatzer-Levy & G. A. Bonanno. (2012). Beyond normality in the study of bereavement: heterogeneity in depression outcomes following loss in older adults. *Social Science & Medicine, 74*(12), 1987-1994.
- [6] L. M. Al-Qaisy. (2010). Adjustment of college freshmen: the importance of gender and the place of res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Studies, 2*(1), 142-150.
- [7] W. K. Kim. (2010). A study 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nd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guard related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6*, 3-17.
- [8] J. E. Kim. (2014). The influence of disabilities identify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university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 Inclusive Education*, 9(1), 79-102.
- [9] H. R. Kim. (2013). A study on developmental factors influencing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4, 85-105.
- [10] C. S. Lee & H. K. Lee. (2014). The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of students -focused on the freshmen of k college. *University Life Research*, 20(1), 19-31.
- [11] S. M. Lindberg., J. S. Hyde., J. L. Petersen & M. C. Linn. (2010). New trends in gender and mathematics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6(6), 1123-1135.
- [12] X. Xu., E. S. Kim & J. E. Lewis. (2016). Sex difference in spatial ability for college students and exploration of measurement invarianc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 176-184.
- [13] J. Berger., F. Oltmanns., M. Holtkamp & T. Bengner. (2017). Sex differences in verbal and nonverbal learning before and after temporal lobe epilepsy surgery. *Epilepsy & Behavior*, 66, 57-63.
- [14] E. E. Sundermann., P. M. Maki., L. H. Rubin., R. B. Lipton., S. Landau., A. Biegon & 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2016). Female advantage in verbal memory evidence of sex-specific cognitive reserve. *Neurology*, 87(18), 1916-1924.
- [15] E. C. Merrill., Y. Yang., B. Roskos & S. Steele. (2015). Sex differences in using spatial and verbal abilities influence route learning performance in a virtual environment: a comparison of 6- to 12-year old boys and girls. *Frontiers in psychology*, 7, 258-258.
- [16] Z. Lou., F. H. Yan., Z. Q. Zhao., W. Zhang., X. Q. Shui., J. Liu., L. Li & E. Yu. (2016). The sex difference in basic surgical skills learning: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surgical education*, 73(5), 902-905.
- [17] R. G. Brockett & R. Hiemstra. (1991). *Self-direction in adult learning: perspectives 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 [18] S. T. Moon, M. H. Bak & B. M. Yang.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human relationship, personal initiative in learning and vocational adaptability o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3), 39-60.
- [19] J. A. Park. (2014). *The Moderating effects of close social relationship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 Seoul.
- [20] S. H. Yoo. (2014).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6(2), 183-202.
- [21] N. Garnefski, V. Kraaij & P. Spinhoven.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22] H. J. Lee. (2010).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 career-related behavior types, attachment, and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3(4), 151-171.
- [23] L. M. Dinella, M. Fulcher & E. S. Weisgram. (2014). Sex-typed personality traits and gender identity as predictors of young adults' career interes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3(3), 493-504.
- [24] L. S. Gottfredson.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25] R. W. Lent, S. D. Brown & G. Hackett.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26] Y. J. So & J. S. Park. (2016).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6(4), 23-44.
- [27] J. S. Lee. (2016).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53-260.
- [28] M. S. Park & J. W. Park. (2018). In the fusion era of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79-87.
- [29] J. B. Lee & O. S. Cho. (2018).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fusion-integrated generation of youth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work environ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281-290.
- [30] Y. R. Lee & J. S. Park. (2018).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mpathy and smart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323-329.

- [31] K. S. An & J. Y. Hwang. (2017).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occupational aspiration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237-247.
- [32] S. Y. Lee.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eparation-individuation level and sex role identit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 Seoul.
- [33] K. A. Lee, H. L. Shin, N. H. Yoo & K. H. Lee. (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inventory-short for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739-754.
- [34] S. A. Kim. (2015). Misogynistic cyber hate speech in korea. *Issues in Feminism*, 15(2), 279-317.
- [35] The editing unit. (2016). [(2) Society and economy] 'Female abomination' is a keyword of the year. *DBpia Research Trend Report*, 1(3), 1-6.
- [36] J. Johnson, L. Greaves & R. Repta. (2007). *Better science with sex and gender: a primer for health research vancouver*. BC: Women's Health Research Network of BC.
- [37] S. Bem. (1974).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38] E. R. Montoya, D. Terburg, P. A. Bos, G. J. Will, V. Buskens, W. Raub & J. van Honk. (2013). Testosterone administration modulates moral judgments depending on second-to-fourth digit ratio. *Psychoneuroendocrinology*, 38(8), 1362-1369.
- [39] M. Vokey, B. Tefft & C. Tysiaczny. (2013). An analysis of hyper-masculinity in magazine advertisements. *Sex Roles*, 68, 562-576.
- [40] J. Hearn. (2010). Reflecting on men and social policy: contemporary critical debate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Critical Social Policy*, 30(2), 165-188.
- [41] J. Ferrante. (2012). *Sociology: a global perspective*. Toronto: Nelson Education.
- [42] R. D. Ashmore & A. D. Sewell. (1998). *Sex/gender and the individual*. In D. F. Barone., M. Hersen & V. B. Van Hasselt. (Eds.), *The Plenum series in social/clinical psychology. Advanced personality* (pp. 377-408).
- [43] A. Constantinople. (1973). Masculinity-femininity: an exception to a famous dictum?. *Psychological Bulletin*, 80(5), 389-407.
- [44] K. Donnelly & J. M. Twenge. (2016).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n the bem sex-role inventory, 1993 - 2012: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Sex Roles*, 76, 1-10.
- [45] J. A. Kelly & J. Worrell. (1977). New formulation of sex role and androgyny. *A Clin Rrev*, 46, 46-56.
- [46] P. C. Della-selva & J. B. Dusek. (1984). Sex role orientation and resolution of eriksonian crises during the late adolescent ye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1), 204-212.
- [47] C. H. Adams & M. Sherer. (1985). Sex-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mplications for the masculinity model. *Sex Roles*, 12(11), 1211-1218.
- [48] C. Gilligan. (1982). *In a different vo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49] J. T. Spence, R. L. Helmreich & C. K. Holahan. (1979). Negative and positive components of psychological masculinity and femininity and their relationships to self-reports of neurotic and acting out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673-1682.
- [50] V. S. Helgeson. (1994). Prototypes and dimens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Sex Roles*, 31(11), 653-682.
- [51] S. G. Yeoum & J. H. Lee. (2014). Gender Role Identity and Depression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0(1), 89-98.
- [52] K. Y. Jeong, H. S. Kim & J. H. Lee. (2012). An analysis of defense styles by gender-role identity and sex in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5), 21-46.
- [53] E. M. Lee & H. C. Cho. (2012). The effects of gender role identity by female taekwondo players on social adaptation. *Korean society for Wellness*, 7(4), 15-23.
- [54] M. S. Hong. (2013). The relations between gender role identity, self-esteem, department adaptation, career barrier and major satisfaction of male students in dance major.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30(3), 1-16.
- [55] S. A. Park & E. K. Jo. (2002). Male gender role and adjustment of korean men.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8(2), 77-103.
- [56] Y. H. Lee. (2008). *The effects of gender role identity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mediated by leadership life skills*. Master's thesis, Hanyang univ. Seoul.
- [57] M. J. Lee. (2010).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identity types and career maturity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Hanshin univ. Osan.
- [58] Y. J. Jeong. (2009). *A comparative analysis on students' gender role identity, gender egalitarianism and school life adjustment among boys and girls*. Master's thesis, Inha univ. Incheon.

- [59] I. S. Choi. (2007). Relations among school adjustment behaviors, academic achievement, gender-role identity, and learning style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Studies*, 34(2), 547-573.
- [60] J. K. Chung. (1990). 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5(1), 82-92.
- [61] N. S. Kim., J. K. Chung & K. B. Park. (1997). Scoring the KSRI : adjustment of the raw scores and establishment of the sample-free cut-off poin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1(2), 77-90.
- [62] T. J. Berndt & K. A. Heller. (1986). Gender stereotypes and social inferences: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889-898.
- [63] E. J. Pedhazur & T. J. Tetenbaum. (1979). Bem sex role inventory: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ritiq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6), 996-1016.
- [64] A. F. Hayes.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Guilford Publications.
- [65] P. A. Gibson, E. H. Baker & A. N. Milner. (2016). The role of sex, gender, and education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89, 306-313.
- [66] D. Kindlon. (2006). *Alpha girls: understanding the new american girl and how she is changing the world*. PA: Rodale.
- [67] H. J. Lee.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aspiratio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50, 1-28.
- [68] C. S. Corprew III, J. S. Matthews & A. D. Mitchell. (2014). Men at the crossroads: a profile analysis of hypermasculinity in emerging adulthood. *The Journal of Men's Studies*, 22(2), 105-121.
- [69] D. H. Kim. (2016).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art therapy for ptsd in korea.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2(3), 227-256.
- [70] D. H. Kim. (2017). A single case study of art therapy for investigation on depression triggers and change factors in suicide high risk soldier. *Th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17(1), 75-94.

김도희(Kim, Do Hee)

[정회원]



- 2014년 2월 : 평생교육진흥원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전공
- 2017년 8월 :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상담심리학 석사
- 2017년 9월 ~ 현재 : 광주 보람의 집 생활재활교사

- 관심분야 : 미술심리재활, 상담심리
- E-Mail : mksbuf@naver.com